



W

“서민금융 서비스 받으세요”

- 저신용층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낮춰주는 전환 대출
-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 대출)
- 창업·복지·취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장 소 : 포항시청 종합민원실(1층)
- 일 자 : ~12월 말까지
- 문 의 : 신용회복지원콜센터 (1588-1288)
창구 직통 상담전화 (272-2470~1)
www.hopenet.or.kr

※ 서민금융 종합상담 창구 방문 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대상자 여부 및 준비서류 등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낙엽길

낙엽진 가지 사이로
신의 자국이 보일 듯 하고
땀줄처럼 드러나는
저 원초의 고향길로
다 낡은 영혼의 집 한 채
지팡이에 끌려간다

물소리로 흔들리던
개망초 꽃밭 너머
가을 소풍이 끝난
산그늘은 구부러지고
몇 마리 길 잃은 새들만
빈 별판을 건넌다

조주환 시인

1974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포항고등학교교장 역임, 경상북도교육연구소원장 역임, 경상북도문인협회장 역임, 시인 '시
할린의 민들레', '독도', '소금', 현재 한국문인협회에서 '문학대외' 기자, 포항 문예아카데미 회원, 양동문학, 서해물 등인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4



» 08



» 14



» 18



» 24

2009 10 CONTENTS

- 04 테마기획 | 단풍산행
- 08 화보특집 | 상전벽해
- 12 포항칼럼 | 포항과 문화 엘리트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⑧ 스스로 무너져내린 탑산사
- 16 문화마당 | 공연, 전시, 행사, 단신, 기타
- 18 포커스 | 포항 중성리신라비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황금들판에 선 허수아비가
가을 인사를 하는 풍경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10월 25일 (통권 75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산홍엽(滿山紅葉)을 찾아 떠나는 가을산행

●●● 완연한 가을이다. 단풍의 계절 가을! 우리나라 단풍은 9월 하순부터 설악산 산머리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된 단풍은 하루에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40m, 남쪽으로 25km 씩 뻗어간다. 이런 단풍이 포항에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도달해 절정을 이룬다. 그야말로 만산홍엽이다. 가을은 또한 산행의 계절이다. 봉오리마다 골짜기마다 불타는 단풍은 저만치서 우리들에게 오라는 손짓을 한다. 산행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쯤 찾아 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한다. 그럴 때는 망설임 없이 단풍도 즐기고 산행의 기쁨도 만끽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포항의 단풍도 설악산이나 속리산 등 단풍명산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포항에도 만산홍엽을 즐길 수 있는 산행코스가 많다. ●●●



내연산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에 위치한 해발 930m(향로봉)의 내연산은 태백준령이 빚어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산이다. 특히 내연산 자락 10km를 굽이굽이 감돌아 흘러내리는 청하골이 단연 으뜸이다. 골이 깊고 물이 맑아 12폭포를 간직하고 있는 청하골은 찾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은 아무래도 관음폭포(제6폭포)와 연산폭포(제7폭포) 언저리일 것이다. 보경사에서 연산폭포까지 왕복에는 대략 2시간가량 걸린다. 등산로가 잘 닦여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이번 가을 가족이 함께하는 단풍산행으로 그저 그만이다.

- 1코스 : 주차장 보경사사령고개 문수봉 삼지봉 마당미기 향로교갈림길 향로봉
- 2코스 : 주차장 보경사 문수암갈림길 상생폭포 보현암 관음폭포 은폭포 Y폭포 잘피입구 시명리 향로봉
- 3코스 : 하옥향로교 주능선갈림길 향로봉
- 4코스 : 샘재 매봉 꽃밭등갈림길 향로봉
- 5코스 : 샘재 삼거리 선바위 시명리 향로봉

운제산

포항시 오천읍 향사리와 대송면 산여리에 위치한 해발 478m의 운제산. 운제산 오어사 추경(秋景)은 올해 '포항12경'의 하나로 선정됐다. 특히 운제산 가운데로 이어진 산여계곡은 천해의 계곡으로 물이 좋다. 정상에는 대왕암이 있다. 바위사이에서 샘이 솟아나오는데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고 전한다.

- 1코스 : 오어사 자장암 산여농장 운제산정상 대왕암(1시간30분)
- 2코스 : 영일만온천 헬기장 철탑 운제산정상 대왕암(1시간30분)
- 3코스 : 흥계리 용암사 흥계폭포 시경계능선갈림길 운제산 대왕암(4시간)
- 4코스 : 오어사 자장암 운제산정상 시루봉 임도 원효암 오어사(5시간)

200리길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조성

포항시는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른 등산객의 안전관리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200리길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를 조성한다(그림참조). 이번에 조성되는 순환 등산로는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노선 77km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 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양학동부학산 창포동국기봉 영일만향으로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양학동부학산~효곡동 TP~연일중명소형산~옥녀봉~운제산~오어사로 연결한다.

시는 순환등산로의 원만한 동선확보와 시가지 관망을 위해 단절구간 연결교량 1개소와 전망대를 겸한 썸시킵터 6개소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도로 개통으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도심지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을 억제하고 도심중심부로부터 시 외곽지역까지 단절 없이 거닐 수 있게 한다.



비학산

포항시 신광면 상읍리에 위치한 해발 762m(형제봉)의 비학산은 포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서 깊은 산중의 하나이다. 법광사에서 정상까지 우거진 수목과 아름다운 경관, 맑은 물, 가을 단풍이 등산객들을 매혹시키고도 남는다. 알갈리성 유허온천인 신광온천과 비학산테마랜드가 있어 산행 후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 1코스 : 법광사 계곡 묘기 전망대 안개바위 정상
- 2코스 : 법광사 계곡 묘4기 안부 정상
- 3코스 : 법광사주차장 무제등 누운바위 안부 정상
- 4코스 : 상읍리 바위 오봉 안부 정상
- 5코스 : 탐정2리 저수지 계곡 묘2기 안부 두룩봉 안부 정상

동대산

포항시 죽장면에 위치한 동대산은 내연산 삼지봉 북쪽 능선에 솟아 있는 봉이다. 이 일대의 압권은 하옥계곡이다. 골 양옆으로 솟구친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단풍이 찾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여기에 맑고 푸른 물과 빼어난 절경이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한다. 잘 다듬어진 등산로는 아니지만 대자연의 진한 향기가 피어나는 운치 있는 코스이다. 하옥리 향로교에서 향로봉 정상까지의 거리는 3.7km로 3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다.

괘령산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와 죽장면 상옥리 경계에 위치한 괘령산은 지역에서 향로봉 다음으로 높다. 그래서 산세가 그리 녹록치 않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한마디로 때가 묻지 않은 산이다. 등산시간은 6~8시간 소요된다.

면봉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위치한 면봉산은 포항 최고봉(1,113m)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보현산(1,124m)에 가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정상에서 보면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두마리를 가운데 두고 사방이 준봉들에 둘러싸인 조망은 가히 일품이다. 가을에는 억새풀의 운치가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 힘들지 않아 가벼운 산행코스로 제격이고 25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밖에도 포항시 죽장면과 청송군 현동면 경계에 있는 베틀봉(930m),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와 경주시 안강읍 경계에 있는 봉좌산(600m), 포항시 죽장면과 영천시 자양면 경계에 있는 수석봉(820m) 등 가을산행을 겸해 단풍을 즐길 곳이 많다.

① 내연산 연산폭포

② 200리길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조성한다





2000년대 북부시가지

시승격 60년 포항의 어제와 오늘

포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1910년대 일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0여 쪽에 450여 컷 사진을 담은 사진집이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간됐다. 이번 사진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집한 사진자료들로 14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일제강점과 6·25전쟁 등 숱한 어려움을 딛고 영일만 신화를 창조하며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의 성장과정은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지난 1949년 시로 승격된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자취와 함께 시가지 변천, POSCO 건립, 각종 개발 현장, 포항인의 삶, 문화 등 14개 테마별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특히 시가지 변천을 비롯한 포항인의 생활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선대들이 흘린 피땀의 의미가 새록새록 피어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후대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사진집은 <포항시인터넷방송 PiTV(<http://tv.ipohang.org>) → 사진으로 보는 포항 → 과거사진집>에서 다시 보실수 있습니다.



1930년대 북부시가지



1960년대 북부시가지



· 덕수동 포항시청사 (1992)
· 대집동 시청사 개청식 (2007)

상징적 자취



· 호미곶 등대 (1960)
· 오거리에 시민탑 (1974)



· 고교생 모내기 일손돕기 (1972)
·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부근
눈에 물 푸는 광경 (1967)



포항인의 삶



· 상도동 공동 빨래터 (1973)
· 포항여고생들의 농수로 정비 모습 (1970)



시가지 변화



· 오거리전경 (1968)
· 오늘날 오거리 전경 (2009)



· 죽도시장 중앙상가 (1972)
· 오늘날 죽도시장 일대 (2009)



· 미스포항들의 퍼레이드(1966)
· 풍년농사체육대회 (1970)



시민화합행사



· 제4회 영일보경문화제 (1982)
· 제2회 포항국제불빛축제 (2005)



포스코



· 포스코 건립직전에 있었던
예수성심시년회(1967)
· 제1고로가 완공 직전 (1972)



· 포철인들의 출퇴근 (1972)
· 오늘날 포스코 전경 (2009)

부산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태종대와 오륙도, 컨테이너 부두 도시의 이미지에 영화로 상징되는 문화 하나를 더한 계기가 됐다.

어디 가서 '나 부산 출신이요' 하면 종래에는 바다의 시원시원한 기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인상에 영화의 도시라는 낭만이 하나 더해진 것이다. 이같은 후광효과는 전쟁의 참화로 국제사회에 각인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88올림픽으로 세계에 새롭게 각인된 전례를 보면 실감이 난다.

밀양도 마찬가지다. 표충사나 화왕산, 얼음골의 이미지로 알려진 이 도시는 전도연이나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 하나로 일약 유명 도시가 됐다.

그 뿐인가. 시와 연극, 영화와 시나리오 작가로 중흥무진하며 '문화게릴라'로 불리는 이윤택이 연극학교와 전국연극제를 연 이후에는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가 익숙해진, '돈 되는 일인가'라는 쉼법을 대입해보도 한 도시의 유무형적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다.

부산과 밀양의 새로운 도약은 포항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바로 문화 엘리트의 육성이 과제라는 것이다. 부산과 밀양은 각각 김동호와 이윤택이라는 걸출한 문화엘리트에 의해 크나큰 덕을 봤다.

이 도시들의 어린이가 커서 서울로 가고 뉴욕으로 진출했을 때 자신의 고향을 별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포항과 문화 엘리트



임재현
사)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은 어떤가? 전국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포항은 일본에 새 문물을 전한 연오랑과 세오녀의 도시이며 일월동 등 동네 이름 곳곳에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월(日月), 두 글자가 박혀 있는 빛의 도시이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곳곳에 전국 최다의 고인들이 산재해 있어 선사부터 사람과 문화가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는 터전이다.

하지만 포항과 문화를 대입시키기가 힘든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항구와 철강, 병영(兵營)의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다. 압축적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 발전 과정에서 문화를 살찌우지 못한 시대적 처지에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문화엘리트가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학교를 설치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단체장이 조례를 보강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지역 유지들이 멘토가 되어 문화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향이 드디어 문화에 관심을 돌린다면 만화가 이현세의 고향 흥해에 만화작가촌이나 만화비엔날레를 유치하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나훈아와 주현미를 '히트' 시킨 걸출한 작곡가 김영광을 모셔 트롯트 가요제도 할 수 있다. 목포가 난영가요제에 문화적 신세를 지고 있는 선례를 포항에 옮겨 올 수 있다.

김득수 사물놀이패 한울림 예술단의 공연기획실장 주재연을 주목해도 된다. 대흥동 유곽 인근의 점빵집 아들인 그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도 고향에서 선배와 동업으로 공연기획을 벌여 김득수 공연을 유치했다가 실패해 공연비 값을 처지가 안 되자 김득수에 아예 합류해 몸으로 떼우기에 나섰다.

고교선배인 변호사가 정치출마를 하겠다고 하자 '문화를 하시죠'라고 일갈했던 그의 문화적 배짱은 타악기 부문 국내 최고의 공연기획자의 터를 잡기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는 그에게 프랑스 아비뇽연극제나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 기간 중 한국의 날 행사 기획을 맡기고 있다.

그가 나선다면 국제타악축제가 포항의 한 상징이 될 수도 있다. 포항과 파도, 철강과 두드림의 이미지는 얼마나 절묘하게 어우러지는가? 영일만과 포스코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환호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에 전국, 전세계의 타악기 연주자들이 한판 공연을 벌이는 상상은 얼마나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가.

오는 연말 드디어 개관하는 포항시립미술관을 관료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화가인 초대소장이 품고 있는 스틸아트의 꿈은 전 세계에 포항을 우뚝 서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엘리트의 육성은 문화의 불모지처럼 잘못 각인된 포항의 이미지를 씻고 바다와 조화된 문화의 도시 포항을 현실로 그려내는 지름길이다.

문화가 사회적 갈등을 예술로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의 태생적 야만성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듯 문화도시 포항은 복잡다단한 이 도시를 사람이 정겹게 모여 사는 터전으로 되살려 줄 것이다.



1



2

1 영일만과 포스코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환호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멋진 공연을 기대해 본다

2 연말 개관을 앞둔 포항시립미술관

청하

샘재 아래 탐산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작고 초라한 절집에 낡은 가사를 걸친 스님 몇 분이 살고 있었다지요. 천령산 주변 경치는 무척 아름다워서 철철이 화려한 빛깔을 바꾸어 담았지요. 탐산사도 작은 바위마냥 다소곳이 산자락을 지켰지요. 절을 찾는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차고 넘쳐났어요. 담을 넘어 간 스님의 말씀을 다람쥐가 주워갔어요. 멧토끼가 긴 귀를 가웃거리며 들었지요. 땅을 파헤치던 장난꾸러기 멧돼지의 콧등에도 었혔어요. 그 녀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골짜골짜기를 헤집고 다녔지요. 아침 일찍 일어난 새들도 탐산사 추녀에 앉았다가 날개짓 가득히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숲에다 뿌렸지요. 어디 그 뿐일까요?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도 절 곁에 와서는 조용조용 숨을 죽이고는 독경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는 그 따뜻한 말씀을 품고 들판으로 달려가서는 오곡을 키워냈지요.

그 덕일까요? 탐산사는 점점 번창하여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절집이 수십 채, 스님도 일백이 넘었으며, 논밭을 수백 마지기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논밭을 아랫마을 백성들에게 소작으로 주고 이를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추수철이 되면 스님들은 마을로 돌아다니며 곡식을 거두어 들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스님들은 지주 행세를 하기 시작했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를 터무니없이 받거나 이런저런 트집거리를 잡아 소작을 바꾸어 버리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눈을 잃지 않으려고 스님이 왔다하면 갖가지 선물을 바쳤어요. 스님들의 거들먹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해 가을, 뒤룩뒤룩 살이 찌고 얼굴에는 심통이 울룩불룩 새겨진 스님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곡식을 죄다 거두어 절로 보낸 뒤에 일부러 백성들 집을 돌아다니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늦은 밤 거나하게 취한 스님은 불룩한 배를 슬슬 쓰다듬으며 고개를 올랐어요. 원구분재에서 잠시 다리도 쉴 겸해서 큰 나무에 기대앉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갑자기 오싹하니 한기가 느껴지고 머리끝이 쭈뼛하고 솟았어요. 화들짝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드는데 집채만한 범이 앞에 탁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악!’

하고 입만 딱 벌리고 나자빠져 있는데 마침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며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대요.

불같이 더분날에 목은말라 타는것고
배는고파 등에불네 아이아 답답아라
우리부모 날기를때 목고늘고 목고커라
고이고이 길렀건만 아이아 답답아라
나는팔자 허복하야 사시장철 와이카노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사모야 ping경달고 호령호령 하건마는
나는어찌 속고속고 속아사는 작인일고

낮이 반쯤 나가있던 스님은 죽을힘을 다해 달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놀라지도 않고 범을 마구 꾸짖었대요.

‘니가 산중의 왕이라고 하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니. 어디 그런 범이 있던 말이고.’

그런데 범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이쿠 참, 이 놈이 어찌 사람이야 사람 탈을 쓴 악귀지.’

‘그래? 그럼 사람인가, 악귀인가 보여주마.’

사람은 바로 범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범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엉겨 붙어서 밀고 당기고, 앞

치락뒤치락 끝이 날 줄을 몰랐어요. 한 시간이 가고, 두 시간이 흐르자 점점 사람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힘이 다한 사람이 외쳤어요.

‘스님! 도와주세요. 정 안되면 ‘이놈!’ 이라고 소리라도 한 번 질러 주세요.’

그제야 화들짝 정신을 차린 스님이 앞을 보니 사람이 범에게 밀려서 곧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다시 범에게 잡힐 것 같았어요.

‘스님! 뭘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스님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사람을 내버려둔 채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치느라 찢기고 긁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스님에게 주지스님이 물었어요.

‘네 목골은 도저히 불제자의 행색이 아니로다. 어찌된 일이나?’

주지 스님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범과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으니까요. 도망친 스님은 거짓을 꾸며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끝이곧대로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주지 스님은 길고 긴 한숨을 내뿜었어요.

‘절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부처를 모신 절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범에게서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도와주지도 않았으니 무슨 낯으로 백성을 대하고 무슨 입으로 부처님을 노래할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로다.’

곁에 있던 목침을 들어 대웅전 마룻장을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높다랗게 버티고 있던 대들보가 ‘푹’ 부러지면서 절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밖으로 달려 나온 스님들이 마당에 내려서자 대웅전에 이어서 나머지 절집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어요. 한 순간에 그 크고 웅장하던 탐산사는 자욱한 흙먼지에 휩싸였어요. 먼지와 티끌들이 잦아들자 탐산사는 그야말로 티끌처럼 사라져 버렸대요.

스스로 무너져 버린 탐산사 사라진 절

● ● ● 청하 황바우골에는 사라져 버린 옛 탐산사 자리가 남아있어요 ● ● ●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행사]

» 일본 순회 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28일 18:30
- 장 소 : 후쿠야마 예술문화회관
- 출 연 : 포항시립교향악단(지휘/유중)
- 프로그램
 - 후루시타 시끼(고향의 사계) 외

» 대한민국창작합창제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28일 18:30
- 장 소 : 대구문예회관
- 출 연 : 포항시립합창단(지휘/공기태)
- 프로그램
 - '만인보' / 고은 작시, 허결재 작곡



» 일본 순회 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30일 18:00
- 장 소 : 가마고리 예술회관
- 출 연 : 포항시립교향악단(지휘/유중)

» 집신골 어머니 (부제:충비단양)

-시립연극단 119회 정기공연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1월 3~4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시립연극단(연출/김삼일), 작/신계호
- 관 람 료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 작품설명

조선 계유정난 때 영의정 황보인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일가가 몰살당하게 되자 그 집안의 여종인 단양이 황보인의 갓난 손주 황보만을 물동이에 숨겨 한양에서부터 포항 대보면 구만리 집신골까지 도망와서 친자처럼 키워 충절을 보여준다.

»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시립교향악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1월 19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프로그램 : 빨간 양귀비/글리에르
피아노 협주곡 제3번/라흐마니노프
전람회의 그림/무소르그스키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아

포항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야외음악회'가 수준 높은 공연과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역의 대표적 예술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외 소공원 등에서 열린 4차례 공연에 모두 3,500여명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탄탄한 기획력을 과시했다.

특히 10월 9일 오후 8시 북구 용흥동 체육공원에서 펼쳐진 포항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공기태)의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야외음악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주민들이 관람해 뜨거운 반응을 느끼게 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공 상임지휘자의 해설까지 곁들여져 합창음악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환호공원에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공연한 '한여름 팝스콘서트'에는 2,000여 관객이 몰려 여름밤을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으로 뒤덮었다. 지난 9월에도 효곡동 SK아파트에서 열린 '찾아가는 야외음악회'에도 1,000여 주민이 찾았고, 7월에는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통합 상대동 한여름 밤의 공원음악회'를 열어 주민화합의 가교 역할을 했다.

»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1월 18일(수) 19:30
- 장 소 : 충진교회
- 출 연 : 포항시립합창단(지휘/공기태)
- 프로그램 : 흑인 영가 명곡, 무반주 합창 모음



포항지역과 왕경사회의 긴밀한 관계 확인



●●● 중성리 신라비는 부정형(不定形) 자연 석 화강암(최대 높이 104cm, 최대 폭 49cm, 두께 12~13cm, 무게 115kg)에 한 면에만 글자를 음각했고, 글자는 전체 12행(行)이며 행별로 최대 20자까지 새겨져 있다 ●●●

포항

중성리 신라비 발견은 육부 문제를 비롯한 신라사 연구의 획기적인 신(新)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냉수리비와의 공통성을 통해 5~6세기 포항지역과 왕경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확

인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 등이 발견의 중요한 의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중성리비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501년 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지만 본 비에 반영된 古拙(고졸)한 6부의 모습 등을 감안하면, 그보다 60년 빠른 441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립 연대를 성급하게 501년으로 단정하기보다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둔 채 차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이문기 경북대 교수가 한국고대사학회와 포항정신문화발전 연구위원회 주관으로 10월 7~8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에서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발견과 그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기했다.

이 교수는 또 "중성리비는 흥해 지역 4개 촌락의 주민을 둘러싸고 약탈과 분쟁이 발생하자 教(교)와 승(령)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그 사실을 사건 관련자와 흥해 지역 지방민에게 알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며 "따라서 본 비는 분쟁에 대해 평결 집행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告示文(고시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중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중성리비는 신라 왕경인의 물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로 지방 사회를 무대로 한 왕경인의 이권 쟁탈전은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의 일단을 보여줄 뿐 아니라, 6부 내부의 계층 분화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이런 점에서 중성리비 발견은 신라사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큰 사건"이라고 했다.

영일 냉수리 신라비가 발견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8.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중성리비는 부정형(不定形) 자연석 화강암(최대 높이 104cm, 최대 폭 49cm, 두께 12~13cm, 무게 115kg)에 한 면에만 글자를 음각했고, 글자는 전체 12행(行)이며 행별로 최대 20자까지 새겨져 있어 모두 203자가 확인됐다.

지난 5월 발견 당시 중성리비는 비문 첫 줄 맨 앞에 '신사(辛巳)'라는 간지가 있어 현존하는 신라비 중 오래된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보다 제작시기가 2년 빠른 501년(지증왕 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학계 및 일반인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성리비의 건립 시기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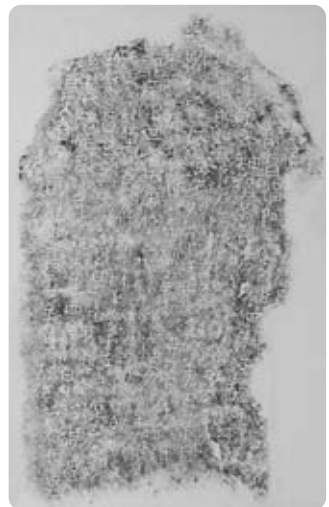
2

① 지난 5월 발견된 중성리 신라비

② 중성리 신라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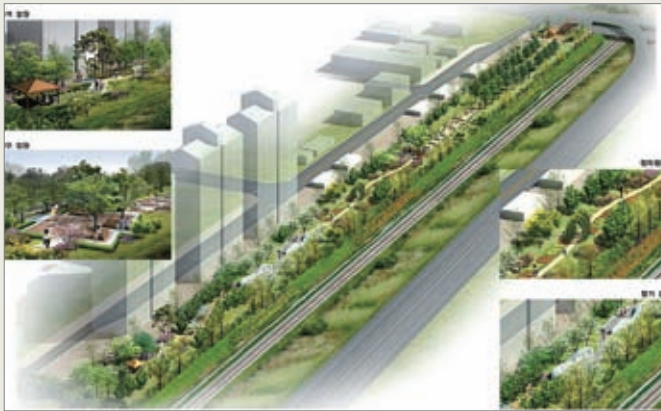
③ 중성리 신라비의 탁본

※왕경이란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에 사는 사람들로 글꼴을 지닌 지배층을 의미함



3

포항 관문에 테라노바 적용한 도시 숲 조성한다



포항시와 포항생명의숲은 남구 연일을 유강리 주거지역과 철로변 사이 완충녹지 405m 구간에 정부 녹색자금 4억 5000만 원을 투입, 도시 숲을 조성하여 포항 관문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민 휴식 및 숲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17일 포항생명의숲으로부터 의뢰 받은 포항 관문 숲 조성사업 시행 설계자 및 시공사로 서울 소재 (주)에이치스퀘어 디자인웍스와 유일조경(주)이 공동 응모한 'Green Edge & Canopy'를 선정했다. 설계는 전국 조경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지역 조경업체로 제한하여 공모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관문 숲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수목 시설물 배치의 적절성 등 평가 전 분야에서 조경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고른 득점을 얻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향후 90일간의 설계 및 시공기간을 거쳐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통일기원 해변마라톤, 7천여 건각 참여로 '성황'



제9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가 9월 27일 6천 7백여 명의 건각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5km 학생부와 일반부, 10km, 하프, 10km 부부, 5km 4인 이상 가족 등 6종목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직장단체가 참여해 기록과 순위에 상관없이 통일을 기원하며 마라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장을 연출했다.

특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의식을 뛰어넘기도 했다. 아울러 최고령자로 출전한 81세의 서병호씨는 아들(서정윤·영일고등학교 교감) 부부와 함께 5km를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남자하프코스에서 정석근(평택시),

여자하프에서 이정숙(지곡동), 남자10km에서 장성연(울진군), 여자10km에서 이민주(부산시), 남자5km에서 유호경(흥해읍), 여자5km에서 김상례, 학생5km에서 김명석(포항기계중)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60세 이상자에 주어지는 건강상에는 대도동 강대민씨, 잉고상에는 장성동 김태현·김영숙 부부, 단결상에는 현대제철과 대동고등학교 팀, 화합상에는 대구은행 경북본부, 행복상에는 창포동 김주식씨 가족이 각각 수상했다.

LG전자 물동량 첫 반입, 러시아로 유럽으로 나간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LG전자 물동량이 영일만항으로 들어온다. 포항시와 포항영일신항만(주)은 10월 15일 오전 11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LG전자 물동량 영일만항 첫 반입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첫 반입된 LG전자 TV부품세트 20TEC는 극동 러시아를 경유,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며, 앞으로 연간 최대 5천TEU가 영일만항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영일만항 이용은 지난 8월 17일 포항시장이 권희원 LG전자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 영일만항 이용을 협약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그룹 주력회사로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TV, 모바일 등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서울, 평택, 청주, 구미, 창원 등에 국내 사업장과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 등에 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다.

▶▶▶ 포항 세계로봇올림피아드 11월 7일 개막



제6회 세계로봇올림피아드(WRO)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국 250개 팀 1,000여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공대 등에서 로봇창작 및 일반경기 부분으로 나눠 펼쳐진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와 함께 이번 대회를 '로봇시티 포항'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막식 등 공식행사는 물론 트랜스포머 '로봇투어버스'에 16개 국내 로봇업체가 생산한 60여종의 로봇을 체험하는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우주를 테마로 한 제6회 포항가족과학축제도 함께 열려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이번 WRO대회는 포항을 로봇산업의 메카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최고실용로봇연구기관 승격, 로봇전문산업단지 조성 등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포항시 인구 증가세 지속

포항시 인구가 지난해 말 511,805명에 이른 이후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며 8월말 현재 512,973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는 1995년 통합이후 2000년 517,25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06년 507,674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영일만항 개항 등 각종 SOC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말 기준 평균연령은 37.3세(남 35.9, 여38.7)로, 이는 경북도민의 평균연령 39.7세(남37.9, 여 41.6) 비해 2.4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포항블루밸리 개발사업 승인고시

포항시는 포항블루밸리 조성계획이 9월 30일 고시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을 시청과 남구청을 통해 주민들에게 열람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편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11월 산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해제되고, 산업단지구역에 새로운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11월부터 지장물과 물권조사를 완료하고 토지평가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활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3월 착공을 위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블루밸리는 구룡도 통해 장기면 일원에 1조 1,978억 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620만㎡을 조성해 기계·철강·선박·자동차부품·에너지·IT업종 등을 유치하게 되며,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0조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2010년도 지역 국책사업 추진 '탄력'

내년도 포항지역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반영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동해안지역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이러한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역 국책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노력과 함께 포항시의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만항건설,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하이파이브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 2010년 주요 국가지원예산 사업별 반영내역

사업명	사업비	기투자	'10예산안	비고
영일만항 건설	15,217	8,945	1,021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5,401	4,705	482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72,388	-	87	신규사업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17,711	768	800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22	219	143	
영일만 2산단단지 진입도로 개설	352	86	136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29,495	1,679	700	
동해남부선(포항~울산) 철도건설	27,233	854	500	
제3세대 방사광 가속기 성능향상	1,000	300	400	
경신호 잔존유 회수	256	-	60	신규사업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6,266	-	30	신규사업

▶▶▶ 호미곶정보화마을, 정보화 명품마을 선정

포항시 호미곶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 운영평가에서 '명품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전국 328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상호검증 등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5곳이 명품마을로 선정됐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명품마을은 지난 3년 연속 평가에서 상위 5%에 속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고, 호미곶정보화마을은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정보화마을임이 입증됐다. 호미곶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5년 우수마을에 이어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전국 1위 대상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명품마을로 선정되면 마을 홈페이지에 '명품마을 인증마크'를 게재할 수 있으며, 해외방문단 관광 견학코스과 대국민 홍보 시 우선 소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체험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일만항, 5대양 6대주 뱃길 열었다

영일만항이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과 정기연안 해상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미주와 유럽을 포함한 5대양 6대주와 연결됐다. 이로 인해 포항은 물론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포항시는 10월 6일 포항시장을 비롯한 최영배 한진해운신항만(주) 대표, 권준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최동준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영일만항과 부산신항만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간 정기연안 해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일만항과 부산신항 간 교류는 물론 포항~부산 간 연안 해송을 위해 한진해운이 315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은 유럽과 미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 지역으로 나가는 지역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컨테이너당 15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포항개항지정기념비, 동빈부두로 이전



포항시는 시청사가 이전된 이후 포운도서관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포항개항지정기념비를 10월 중 동빈내항 복원과 연계해 새롭게 정비되는 동빈부두로 이전기로 했다. 이 기념비는 포항항 개항을 기념하기 위해 1963년 3월 1일 구청사에 건립돼 올해로 47년째를 맞고 있으며, 시는 시청사를 대잠동으로 옮긴 이후부터 이의 이전 장소를 놓고 고심해 왔다. 시는 새롭게 정비되는 동빈부두에 포항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담긴 기념비가 이전되면 시민들이 동빈부두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미래 포항 견인할 115개 신규 시책 발굴

포항시는 7월부터 2개월 간 2010년 시정반영을 목표로 각 부서 별로 신규시책 발굴사업을 실시해 예산수반사업 95건과 비예산사업 20건 등 총 115건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시책 중에는 미래 포항을 견인할 '포항로봇연구공원조성', '스마트그리드시범도시지정', '그린빌리지조성' 등이,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저터널설치사업', '서핑특구지정' 등이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서민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대출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특히 과메기 판매확대를 위한 '생선회 및 과메기용 기능성 초고 추장 개발' 등은 비록 소소하지만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 실행부서 지정과 시행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비예산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수반사업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발굴시책 추진상황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기아자동차 물동량 영일만항 입성 시작



포항시는 10월 12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기아자동차의 러시아 수출물동량 300TEU에 대한 반입식을 가졌다. 이번이 처음으로 영일만항에 반입된 기아자동차 물동량은 11월경 러시아 현지로 수출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됐으나 앞으로는 전량 영일만항을 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입식에 참석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운송관계자들에게 꽃목걸이를 전달하면서 영일만항 이용을 환영했고, 포항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포항지방항만청장, 포항영일신항만(주)대표,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반입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러시아 수출물동량은 완성차가 아닌 부품형태로 현지에서 완성차로 조립돼 러시아와 유럽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다.

▶▶▶ 내가 기증한 나무로 '푸른 포항' 가꾼다

포항시는 '푸른 포항' 조성을 위해 범시민 헌수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동빈내항 복원 등 굵직한 녹지 조성공사에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수목을 이용,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헌수운동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도 헌수목을 꾸준히 접수해 나무은행(양묘장)에 보관했다가 공원이나 녹지대 조성에 식재할 계획이다. 헌수대상목은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수형이 좋은 나무, 너무 크게 자라 주택에 있기 부담스러운 나무, 묘지 도래수 등이다.

헌수목이 있을 경우 도시녹지과(270-3212)로 연락하면 현장실사 후 도시숲 조성지로 이식한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225본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포항 관문과 주요 교통섬 등지에 식재하여 3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 죽도시장 민생 탐방과 현장 간담회 벌여



포항시의회의가 추석대목을 맞아 죽도시장 민생탐방에 나섰다.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9월 30일 오전 죽도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포항시로부터 죽도 위판장 시설현대화와 주차장조성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실시 설계 단계부터 수협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항수협장 및 중매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수협부지의 수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최영만 의장은 수협 관계자들에게 "죽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위판장 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 및 유니폼 착용 등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권광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 업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차량들의 후면 주차로 인해 상가 업주들이 차량 매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부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 나눌수록 크지는 이웃 사랑!



포항시의회의 의장단·상임위원장은 9월 29일 대잠동 '마리아의 집'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 450만원 상당의 백미 및 생필품과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하고 위문했다. 이날 방문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물론 지체장애인과 아이들이 불편한 일은 없는지, 각종 애로나 건의를 듣는 등 시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시설 관계자는 "명절이 되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외로움

이나 소외감이 더욱 더 커질 뿐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최영만 의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복지행정을 통해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이 없도록 하고, 인정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포항시의회의가 앞장서 이뤄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최선 당부

포항시의회의는 9월 28일 영일만항 개장을 성공리에 마친 최동준 영일신항만주식회사 대표와 권준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을 초청, 격려하고 물동량 확보상황과 선사유치 계획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최영만 의장은 "항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영일만항의 활성화 여부는 지역기업의 물동량 확보에 달려 있으며, 특히 대구지역은 트레일러 1대가 컨테이너 1개를 영일만항으로 운송할 경우 부산신항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 37km(122km-87km), 비용 7만9천원(392,000원-312,900원)은 물론 운송시간도 30~40분 단축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대구지역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조례를 제정해 항만이용 불륨 인센티브(이용장려금,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손실 보조 등)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158회 임시회 폐회



제158회 포항시의회의 임시회가 9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시의회의원(임영숙)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명호)에서 '20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결정'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김종린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포항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례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1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과정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양초보 등(9개 과정 9개 반)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기 이수한 교육과정 수강신청불가)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의실 (문화복지동 2층) : 270-5825
 - 남구 시민정보화교육장 1,2강의실 (종합운동장 2층) : 270-5823
 - 북구 시민정보화교육장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 270-5824
- 신청기간 : 2009. 10. 26(월) 09:00부터 선착순
- 인터넷접수방법 (오픈마켓판매 및 사진편집 100%, 기타과정은 접수인원의 50%) <http://culture.ipohang.org>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 후→아이디(ID)란에 ipohang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최근 강좌→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 선택

[기타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2009 포항시 자원봉사박람회 및 체육대회

- 일 시 : 10월31일(토) 10:00~17:00
- 장 소 : 남구 해도공원
- 참여인원 : 3,000명(자원봉사자, 시민, 학생 60개기관·단체)
- 주 관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 행사내용 : 자원봉사비전선언,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 [문의 : 자원봉사센터(248-8742~3), 새마을봉사과(270-3041)]

중고 장난감을 교환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중고 장난감을 교환해주는 녹색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육거리에서 우체국 사이 중앙상가에 위치한 녹색장난감 가게는 10월 9일 개장해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녹색장난감 가게는 기증받은 중고 장난감을 수선하여 필요한 가정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중고 장난감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쿠폰을 지급해 다른 장난감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10월 포항시민교양대학

- 일 시 : 2009. 10. 28(수) 오후2시
- 장 소 : 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 강 사 : 이상용 (방송연예인)
- 주 제 : 웃으며 사는 여유 있는 세상
- 문 의 : 포항MBC(289-0122), 평생학습과 (270-2871)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 직판행사 개최

- 일 시 : 10월31일(토) 09:00 ~ 17:00
- 장 소 : 포항시청 앞 광장
- 주 최 :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포항시연합회
- 행사내용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친환경농산물 20%할인 판매, 노래자랑, 과일깎기경진, 시식코너 운영 등
- [행사문의 : 포항시 농축산과 (270-2682~3)]

주민등록증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

10월 2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무단 전출직권말소제도'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주민등록무단전출직권말소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 인터넷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문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10월 25일부터 포항~제주 운항시간 변경

구 분	제주~포항	포항~제주	비고
변경후	15:20~16:20	17:00~18:00	
변경전	13:40~14:40	15:00~16:00	

[문의 : 아시아나항공 포항공항지점(286-2604)]

오천농협 문덕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포항시는 9월 25일 오천농협 문덕지점에 무인민원발급코너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서류 13종을 본인 신분증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오천 문덕은 철강산업단지에 인접해 주거 배후지로 급부상하면서 아파트와 원룸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이번 민원발급코너 설치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신종플루 거점 병원 및 약국 확대 안내

연 번	거점병원	소재지	전 화
1	세명기독병원	남구 대도동 94-2	275-0005
2	포항성모병원	남구 대잠동 270-1	272-0151
3	포항의료원	북구 용흥동 310	247-0551
4	포항선린병원	북구 대신동 69-1	245-5000
연 번	거점약국	소재지	전 화
1	효자한약국	효자동 303-1	272-0573
2	온누리신그린약국	남구 송도동 439-18	244-2009
3	일선약국	구룡포읍 구룡포리 773-3	276-2559
4	편한약국	오천읍 용덕리 332-22	291-5507
5	남부시정약국	상도동 629	273-9618
6	그린약국	지곡동 28외 6B	221-4951
7	비타민약국	오천읍 용덕리 397-1	293-8889
8	대희약국	오천읍 용덕리 331-25	292-2863
9	굿모닝온누리약국	두호동 1087-3	232-7572
10	개풍약국	죽도동 597-12	247-9500
11	정약국	용흥동 103-3	247-1379
12	국제약국	남빈동 417-21	252-1830
13	혜민약국	용흥동 103-6	232-3186
14	팜리제일약국	죽도2동 51-4	275-7575
15	선린약국	대신동 68-35	244-2552
16	포항경북약국	죽도1동 42-1	248-7400
17	명강약국	용흥1동 357-1	246-6185
18	나을약국	홍해읍 옥성리 98-9	262-8799
19	메디팜조야약국	장성동 산 295-3L	232-0080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 입주자격 :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제한 없음(정보 통신 우대) ● 모집업체수 : 0기업
- 지원사항 : 경영·법률·회계 컨설팅, 기술이전 및 자문 지원, 벤처기업 자금알선 등
- 입주심사 : 서류심사(1차), 기술 사업성심사(2차), PPT발표(3차)
- 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www.postechvbi.com>) 참조
- 접수일시 : 10월7일(수)~10월30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접수 가능
- 접 수 처 :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무은재기념관 208호)
- [문의 : 279-8480(anna6629@postech.c.kr)]

경북 도내 금융 소외자 지원 안내

- 사 업 명 : 낙동강 Loan(대부)
- 추진배경 : 금융 소외자에게 재할 기회 제공 등
- 지원인원 : 350여명(인 300~500만원, 총 10억 원)
- 대출기간 : 3년 이내 상환(금리 4% 이하)
-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회 차 이상 변제계획 이행한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로서 도내 거주자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1600-5500(www.ccrs.or.kr)]

정치자금기탁금 기부 안내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음
- 개인은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탁방법
 -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계좌(농협 1084-01-007694 예금주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에 입금, · 입금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서 제출(팩스 등 FAX : 272-2708),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 수탁증(영수증)을 교부(우편 송부 등), · 기탁금 수탁증은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 증빙서류로 활용[기타문의 : 054) 272-7500, 256-3939]
 - ② 기탁의사를 전화(☎272-7500)로 밝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서에 인적사항등을 대신작성,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입금,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금 수탁증(영수증)을 교부(우편 송부 등)
 - ③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 간편하게 기탁(계좌입금,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가능)
- ④ 휴대폰으로 539(오~선거)를 누르고 무선인터넷을 접속하여 간편하게 기탁
- [기타문의 : 남구선거관(272-7500), 북구선거관(247-2979)]

10월 2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환급금 조회해보고 찾아가세요!

유가환급금등 각종 국세환급금 미수령금액을 인터넷에서 확인한 후 현금 및 은행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 찾기'에서나 포항세무서 운영지원과(245-2263~2268)를 이용하면 된다.

제6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안내

- 응시자격은 제1종 운전면허소지, 만21세 이상,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신원조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시험일정

접 수 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인터넷	방 문		
10.21(수)~11.17(화)	11.18(수)~11.20(금)	12.6(일)	12.8(화)

[기타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053-794-3819)]

선거부정감시단원 모집안내

- 해당선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 담당직무는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 지원 등
- 보수는 출무한 1일당 수당 및 실비지급, 특전 활동우수자는 사례금 등 지급
- 신청서접수기간 : 10. 26 ~ 11. 27 (각 09:00 ~ 18:00)
- 지원서는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 지원서(양식비치), 사진3매(3.4X4.5), 이력서를 제출
- 면접 : 10. 26 ~ 11. 27 (각 09:00 ~ 18:00)
- 합격자발표 : 12.5(월) 이후 개별통지
- [문의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T.256-3939),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T.254-3939)]

포항시 환경미화원 사랑나눔봉사단,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

포항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그늘진 이웃을 찾아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 50여명은 10월 11일 용흥동과 송라면 화진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아 노후 전기시설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담장 도색, 노후 지붕 수리 등에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9월 13일에도 40여명의 단원들이 구룡포읍에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노후 화장실 지붕과 좌변기 교체, 욕실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 담장 페인트 작업과 함께 구룡포리 경로당을 청소하는 등 하루 종일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김삼성 사랑나눔봉사단장은 "사랑나눔봉사단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며, 그들이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 10월13일 전화와 전보를 통해 사랑나눔봉사단에 "여러분의 사랑 나눔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 포스코 P.C.P 봉사단, 지역협력 나섰다



포스코 포항지역 P.C.P 봉사단협의회(회장 김왕기 조선내화 고문)는 9월 28일 포항시 푸드마켓과 협무협약을 맺고 향후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 포항지역 우수 파트너사로 구성된 봉사단협의회(P.C.P)는 조선내화(주)를 비롯한 17개 우수 협력사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협의회 김왕기 회장은 "참여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죽도 자생단체, 전통시장살리기 캠페인 전개

죽도동(동장 김진택) 전체 자생단체 회원 100여명은 9월 23일 추석을 앞두고 환경정비 활동과 함께 '추석 세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마련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불황 타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 포스코 제강부, 자매마을에 위문품 전달



포스코 제강부(부장 남수희) 직원 10여명은 9월25일 추석을 앞두고 자매마을인 송도동주민센터(동장 이상권)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쌀 200포(10kg)를 기탁했다. 또 포스코 제2제강부(공장장 임문석)와 직장협의회(회장 이규원)는 관내 2세대에 대해 매월 10만원을 1년간 후원하기로 했다.

▶▶▶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기금 기탁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이연우)는 9월 21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글로벌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기금 125만8천원을 기탁했다. 정희엽 학생대표는 "학생들이 300억 원 장학기금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십시일반 마련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상사(주지 운봉스님) 신도들도 9월 29일 2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정영수 남신도회장과 김옥남 여신도회장은 "그동안 대상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과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제목 | 어느 날 (One day) | 크기 | 162.0 X 112.0 cm | 재료 | 캔버스에 유채



박정열 Park, Jeung-Youl

개인전(2002 대백갤러리)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경북도 전 대상 수상 / 2008이트 대구 / 중·남부 구상회화제 / 한국-살아있는 자연전 / 한국 현대미술100인전 및 각종 기획 초대전 150여회 출품 / 한국미술, 심현회, 현상회 회원

회화적 필선(筆線)

오늘날의 그림이 동서양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박정열의 그림은 서양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서양화임에도 불구하고 오일(Oil)물감을 통해 발현해 내는 그의 감성은 토속적인 우리의 전통과 정서에 맞닿아 있다.

근자에 들어 드로잉 하듯 거칠게 뿜어 내는 그의 붓질은 일반적인 구상회화의 묘사나 재현과는 달리 외형의 아름다움을 쫓는데 그치지 않고, 마치 서예의 필선처럼 화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예민하게 드러내는 추상적인 격률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기억 저편에 있는 삶의 단면을 작가 고유의 회화적 필선으로 끌어내 삶의 온기가 따뜻한 시대의 어느 구석진 골목길로 우리의 마음을 불러내고 있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